

## 자기소개서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안정환

저는 어릴 때부터 해운업에 종사하신 아버지를 보며 자연스럽게 해운 산업과 항해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안정적인 전문 직업의 중요성을 느끼며, 관심 있던 항해사의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해양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는 박영수, 김대원 교수님이 공동으로 이끄시는 K&P 연구실(해양교통안전연구실)에 소속되어 해양사고모의심판대회에 참가하는 등 실무적인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계에서 활동 중인 선배님들의 특강을 들으며 항해사뿐 아니라 도선사, SIRE 검사관 등 여러 진로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후 HMM Ocean Service사의 VLCC 선박에서 실습 항해사로 승선하며 PSC 및 SIRE 검사 등 실무를 직접 경험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반드시 훌륭한 항해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굳혔습니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습 항해사 기간 동안 화물탱크에 직접 들어가서 작업을 참관하는 등의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작업도 스스로 배우고자 참여하였고,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먼저 공부하고 질문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고,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 현장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팀 분위기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저의 단점은 때로는 열정이 지나쳐 무모하게 행동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습 기간 동안 함께 근무한 시니어 사관님들의 조언을 통해, 무모함을 자제하고 열정을 올바르게 발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침착함과 판단력을 함께 키웠으며, 현재는 이를 저만의 강점으로 발전시켰으며, 정직/성실/지혜가 중요한 동지해운에서도 강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생활신조가 하나 있습니다. 이는 “소통은 협력의 시작이다.” 입니다. 선박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여러 사람이 협력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작은 오해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습 당시 일등항해사님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데이워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하역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선박 내에서 신뢰받는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동지해운은 안정적인 선대 운영과 우수한 복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실무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성장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습한 VLCC 선종은 동지해운의 액화가스 선박과는 조금 다르지만 탱커선에서 실습한 제 경험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입사 후에는 최소 1항사 이상으로 성장하며 장기 승선을 목표로 하고, 휴가 기간에도 상위 면허 취득 및 관련 교육을 통해 꾸준히 역량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선박 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SIRE 검사관 등의 메이저 검사관 혹은 더 나아가 도선사와 같은 전문 직무에도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 승선을 하며 경력을 쌓으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계획입니다. 동지해운에서의 첫 걸음을 시작으로,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해양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